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10. 27.(금) 11:00 < 10.28.(토) 조간 > 배포 2023. 10. 27.(금)

우리 기업과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페트로나스 간 협력방안 논의

- 액화천연가스(LNG), 수소, 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(CCS)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 협력 모색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방문규)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0월 27일(금) 오후 서울에서 아드난 자이날 아비딘(Adnan Zainal Abidin) 페트로나스 최고운영책임자(COO)와 면담하고, 액화천연가스(LNG), 수소, 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(CCS)* 등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* 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(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)

페트로나스는 말련 국영 에너지기업으로서, 우리 기업과 다수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며, 이번 면담은 페트로나스 최고운영책임자가 한국 측 협력기업을 만날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.

(액화천연가스(LNG) 분야)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우리 기업과 페트로나스는 액화천연가스(LNG) 도입계약을 체결하고, 해외 가스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등 액화천연가스(LNG)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동반자(파트너)임을 강조하고, 앞으로도 액화천연가스(LNG) 분야 협력이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.

(수소 분야) 포스코홀딩스, 삼성엔지니어링 등 우리 기업과 젠타리(페트로나스의 친환경 사업 부문 자회사)가 말련 사라왁 지역에서 추진 중인 그린 암모니아 생산 사업(프로젝트) 관련 우리 기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.

(탄소 포집·저장(CCS) 분야) 우리 기업과 페트로나스가 한-말련 간 이산화탄소 국경 이동 및 저장을 위해 추진 중인 셰퍼드(Shepherd) 사업(프로젝트) 관련 양국 참여 기업의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서 한-말련 간 '이산화탄소 국가 간 이송·저장 협약'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페트로나스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.

담당 부서	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재은 (044-203-5240)
		담당자	주무관	김채은 (044-203-524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